BNK 경제인사이트

ISSN 2384-3519

BNK 경제연구원
NO. 2022-09 (2022년 09월)

동남권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시사점

이글 책임연구원(glee@bnkfg.com)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최근 10년간 동남권 인구 순유출 규모는 28.8만명에 달하며 경제권역중 가장 컸다. 시도별로는 경남, 부산, 울산 순이었으며 시군구 43개중 40개 지역의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순유출 최대지역은 서울 관악구였으며 다음으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순이었다. 20대를 중심으로 전 연령층의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상회했으며 10~30대는 수도권, 40대 이상은 비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은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인구 감소세가 빨라지는 가운데 모든 연령대의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이 '교육'과 '직업' 문제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1차 및 2차 두뇌유출 규모가 경제권역중 최대인만큼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속도와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도 핵심 인적자본인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지원을 위한 종합 로드맵, 전담조직, 관련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동남권 인구 28만 8천명 순유출

동남권 인구는 최근 10년(2012~21년)간 총 28.8만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내 전입인구는 156.9만명, 역외 전출인구는 185.7만명으로 조사됐다.

연간 순유출 규모는 2012년의 경우 약 2만명에 달했으나 2014~15년중 6~8천명 수준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다시 증가하며 2021년중 4.6만명까지 늘어났는데 이는 전출인구의 경우 증가세를 보인데 반해 전입인구는 혁신도시 이전효과 축소[1] 등으로 감소한데 상당부분 기인한다.

경제권역중 동남권은 인구 순유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경권 19.5만명, 호남권 15.9만명 순이었다. 반면 충청권(28.3만명), 수도권(25.0만명), 강원제주권(11.0만명)의 경우 같은기간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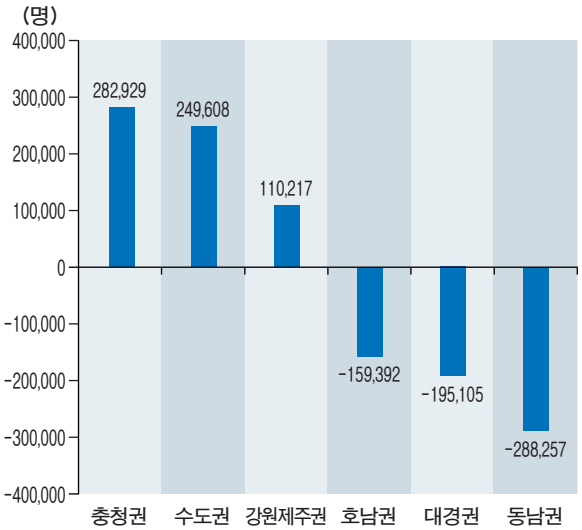
동남권 인구이동 추이

(명)

구분	전입(A)	전출(B)	순유입(A-B)
2012	168,492	187,868	-19,376
2013	165,943	177,552	-11,609
2014	177,112	183,343	-6,231
2015	178,461	186,996	-8,535
2016	156,468	183,710	-27,242
2017	147,461	183,797	-36,336
2018	141,131	186,354	-45,223
2019	141,919	184,755	-42,836
2020	147,668	192,257	-44,589
2021	144,134	190,414	-46,280
계	1,568,789	1,857,046	-288,257

주 : 주민등록인구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권역별 인구이동 규모



주 : 1) 2012~21년 인구이동 합계
2) (+)는 인구 순유입, (-)는 인구 순유출
자료 : 통계청

1)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입주완료 현황(동남권 33개 기관 이전 완료 / 부산 13개, 울산 9개, 경남 11개)

완료시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완료기관	1개	5개	15개	8개	2개	1개	0개	1개

※ 동남권으로 이전한 33개 기관의 총 이전인원은 10,621명(승인인원 기준)

순유출 규모는 경남, 부산, 울산 순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부산, 울산, 경남 모두 동남권 역외로 인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이 동남권 역외로의 순유출 규모(11.8만명)가 가장 컸다. 동남권 역외에서 경남으로 전입한 인구가 67.6만명, 경남에서 동남권 역외로 전출된 인구가 79.5만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 11.5만명(전입 61.5만명, 전출 73.0만명), 울산 5.5만명(전입 27.7만명, 전출 33.3만명) 순으로 순유출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내 이동을 살펴보면 부산과 울산은 인구가 순유출되었으나, 경남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울산과 경남에서 57.9만명이 전입됐으나 이들 지역으로 66.4만명이 전출되며 8.5만명의 순유출이 이뤄졌다. 울산은 부산과 경남으로 0.5만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남의 경우 부산과 울산에서 9.1만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 인구이동 규모

(명)

구분		전입(A)	전출(B)	순유입(A-B)
부산	동남권 外	615,157	729,831	-114,674
	동남권 內	579,272	664,723	-85,451
	(합계)	1,194,429	1,394,554	-200,125
울산	동남권 外	277,355	332,629	-55,274
	동남권 內	179,753	185,083	-5,330
	(합계)	457,108	517,712	-60,604
경남	동남권 外	676,277	794,586	-118,309
	동남권 內	642,598	551,817	+90,781
	(합계)	1,318,875	1,346,403	-27,528

주 : 2012~21년 인구이동 합계
자료 : 통계청

모든 경제권역으로 인구 순유출 이뤄져

동남권 인구는 전국의 모든 경제권역으로 순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20.0만명)으로의 순유출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충청권(5.0만명), 강원제주권(1.6만명), 대경권(1.6만명), 호남권(0.6만명) 순이다.

시도별로는 부산은 대구, 광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로 인구가 순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5.2만명)이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경기(3.4만명), 충남(0.8만명), 제주(0.6만명), 인천(0.5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전북, 대구, 광주를 제외한 11개 시도로 순유출되었다. 서울과 경기로의 순유출 규모가 각각 1.9만명과 1.4만명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경북(1.2만명), 충남(0.4만명), 충북(0.2만명) 순이었다.

경남은 광주를 제외한 13개 시도로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서울로의 순유출이 4.4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2.8만명), 충남(0.9만명), 경북(0.6만명), 대전(0.5만명) 순으로 파악됐다.

동남권 인구이동 지역

(천명)

구분	순유입(순유출) 대상지역 및 규모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제주권			충청권			수도권	
	−6.1			−15.9			−16.1			−50.2			−200.0	
·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강원	전남	경북	대전	충북	세종	인천	제주	충남	경기	서울
	4.8	0.6	−0.8	−0.9	−1.7	−1.9	−3.1	−3.2	−3.6	−4.9	−5.9	−8.1	−33.6	−52.5
· 울산	전북	대구	광주	강원	전남	인천	대전	세종	제주	충북	충남	경북	경기	서울
	1.6	0.8	0.3	−0.7	−0.9	−0.9	−1.2	−1.4	−1.9	−2.1	−4.0	−11.6	−14.3	−18.9
· 경남	광주	전북	강원	대구	인천	세종	전남	제주	충북	대전	경북	충남	경기	서울
	0.0	−0.9	−2.0	−2.2	−3.3	−4.0	−4.4	−4.7	−5.2	−5.4	−5.9	−9.0	−27.6	−43.9

주 : 1) 2012~21년 인구이동 합계
2) 동남권내 인구이동은 제외
3) (+)는 인구 순유입, (−)는 인구 순유출
자료 : 통계청

[참고] 동남권 시도별 인구 전입, 전출 규모

▣ 동남권은 전입인구 156.9만명중 46.2%인 72.4만명이 수도권에서 전입되었으며 다음으로 대경권(27.1%), 충청권(10.6%) 순

▣ 전출인구의 경우 185.7만명중 49.8%인 92.4만명이 수도권으로 전출되었으며 다음으로 대경권(23.7%), 충청권(11.7%) 순

(명)

〈 전 입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동남권	수도권 (724,251)	대경권 (425,126)	충청권 (166,467)	호남권 (159,600)	강원제주권 (93,345)
부산	서울 (148,348)	경기 (132,998)	경북 (94,622)	대구 (52,180)	전남 (31,859)
울산	경북 (72,562)	서울 (48,655)	경기 (48,271)	대구 (32,158)	충남 (11,284)
경남	경기 (148,326)	서울 (131,651)	경북 (89,332)	대구 (84,272)	전남 (41,591)
구분	6위	7위	8위	9위	10위
부산	인천 (25,425)	충남 (23,573)	강원 (20,305)	제주 (19,588)	대전 (18,814)
울산	전북 (10,110)	인천 (10,057)	전남 (9,778)	강원 (9,086)	충북 (8,046)
경남	충남 (30,653)	인천 (30,520)	강원 (24,289)	대전 (21,940)	전북 (20,761)
〈 전 출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동남권	수도권 (924,207)	대경권 (440,989)	충청권 (216,664)	호남권 (165,718)	강원제주권 (109,468)
부산	서울 (200,832)	경기 (166,593)	경북 (96,493)	대구 (47,346)	전남 (33,567)
울산	경북 (84,145)	서울 (67,568)	경기 (62,600)	대구 (31,320)	충남 (15,317)
경남	경기 (175,946)	서울 (175,586)	경북 (95,188)	대구 (86,497)	전남 (45,967)
구분	6위	7위	8위	9위	10위
부산	충남 (31,718)	인천 (30,275)	제주 (25,493)	대전 (21,910)	강원 (21,227)
울산	인천 (10,963)	전남 (10,674)	충북 (10,138)	강원 (9,804)	대전 (8,611)
경남	충남 (39,616)	인천 (33,844)	대전 (27,293)	강원 (26,263)	충북 (24,400)

주 : 1) 2012~2021년 인구이동 합계
2) 동남권내 인구이동은 제외
자료 : 통계청

동남권 43개 시군구중 40개가 역외로 인구 순유출

최근 10년간 동남권 43개 시군구중 40개가 동남권 역외로 인구가 순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순유출 규모는 울산 남구(1.9만명), 경남 김해시(1.9만명), 부산 해운대구(1.5만명), 경남 창원시 성산구(1.5만명), 부산 북구(1.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16개 구군중 14개가 동남권 역외로 순유출되었다. 순유출 규모는 해운대구, 북구, 사하구, 동래구 순이며 강서구와 기장군은 순유입 지역으로 파악됐다[2].

울산의 경우 5개 구군이 모두 동남권 역외로 인구 순유출이 이뤄졌다. 순유출 규모는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 순이다. 경남의 경우 22개 시군구중 산청군을 제외하면 모두 동남권 역외로의 순유출이 나타났다[3]. 순유출 규모는 김해시,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거제시 순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인구이동 현황

구분	순유입 지역	순유출 지역			
	5천명 미만	5천명 미만	5천명 초과 1만명 미만	1만명 초과 1만5천명 미만	1만5천명 초과
부산	강서구 기장군	영도구 서구 동구 중구	남구 사상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북구 사하구 동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울산			북구 동구 울주군	중구	남구
경남	산청군	밀양시 고성군 의령군 하동군 합천군 남해군 함안군 거창군 함양군 창녕군 사천시	거제시 통영시 마산합포구 양산시 진해구 진주시	성산구 의창구 마산회원구	김해시

주 : 1) 2012~21년 인구이동 합계
2) 동남권내 인구이동은 제외
자료 : 통계청

2) 부산 강서구, 기장군의 인구 순유입은 신도시 건설 효과에 상당부분 기인
3) 경남 산청군의 인구 순유입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 통영대전고속도로 개통후 접근성 개선 등에 주로 기인

서울 관악구,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로의 순유출 많아

시군구 기준으로 동남권은 역외지역중 서울 관악구(2.1만명)로의 순유출이 가장 많았다[4)5)]. 다음으로 경기 화성시(1.1만명), 경기 평택시(1.1만명), 세종시(0.9만명), 서울 마포구(0.8만명) 순이다. 상위 10대 순유출 지역은 세종시, 제주시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 · 경기권이었다.

부산의 경우 서울 관악구(0.9만명)가 최대 순유출 지역이었다. 다음으로 경기 화성시(0.5만명), 서울 마포구(0.4만명), 서울 강남구(0.4만명), 세종시(0.4만명) 순으로 파악됐다.

울산은 인근지역인 경북 경주시(0.7만명)로의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서울 관악구(0.3만명), 경기 화성시(0.2만명), 경기 평택시(0.2만명), 세종시(0.1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서울 관악구(0.9만명)로의 순유출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 평택시(0.5만명), 경기 화성시(0.4만명), 세종시(0.4만명) 순이었으며 대구 달성군(0.3만명)이 5위 순유출 지역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주요 순유출 대상지역

(명)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동남권	서울 관악구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세종 세종시	서울 마포구	서울 강남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제주 제주시	서울 동대문구
	20,887	11,290	10,848	8,910	8,441	7,583	7,102	7,028	7,004	6,982
부산	서울 관악구	경기 화성시	서울 마포구	서울 강남구	세종 세종시	경기 평택시	제주 제주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대문구	경기 수원영통구
	8,866	4,726	4,042	3,651	3,558	3,548	3,355	3,307	3,180	3,026
울산	경북 경주시	서울 관악구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세종 세종시	서울 마포구	경기 용인기흥구	경기 수원영통구	서울 강남구	충남 천안서북구
	6,799	3,350	2,489	2,053	1,383	1,334	1,281	1,228	1,204	1,178
경남	서울 관악구	경기 평택시	경기 화성시	세종 세종시	대구 달성군	서울 마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광진구
	8,671	5,247	4,075	3,969	3,449	3,065	2,904	2,896	2,838	2,827

주 : 1) 2012~21년 인구이동 합계
2) 동남권내 인구이동은 제외
자료 : 통계청

4) 서울 관악구에서 동남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31,586명, 동남권에서 서울 관악구로 전출된 인구는 52,473명으로 파악
5) 동남권 역외지역에서의 전입은 경북 경주시(54,982명), 대구 달서구(39,422명), 경북 구미시(34,569명) 순이며 역외지역으로의 전출은 경북 경주시(61,960명), 서울 관악구(52,473명), 경북 구미시(37,324명) 순인 것으로 조사

[참고] 동남권 주요 시군구별 인구 전입, 전출 규모

(명)

〈 전 입 〉

시도	시군구	1위	2위	3위	4위	5위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남구 (3,382)	서울 송파구 (2,221)	서울 서초구 (2,040)	서울 관악구 (2,028)	경주 (1,999)
	부산진구	경주 (1,819)	구미 (1,694)	서울 관악구 (1,629)	제주 (1,524)	포항 북구 (1,415)
	남구	경주 (1,392)	제주 (1,226)	포항 북구 (1,211)	포항 남구 (1,206)	구미 (1,193)
	사하구	서울 관악구 (1,146)	경주 (1,127)	구미 (1,108)	제주 (1,059)	포항 북구 (1,032)
	금정구	경주 (1,530)	서울 관악구 (1,209)	구미 (1,177)	포항 북구 (1,059)	대구 달서구 (1,033)
울산	남구	경주 (6,380)	대구 달서구 (2,024)	포항 북구 (1,871)	대구 수성구 (1,784)	포항 남구 (1,784)
	북구	경주 (10,758)	대구 달서구 (1,395)	포항 북구 (1,357)	대구 북구 (1,229)	포항 남구 (1,227)
	울주군	경주 (4,069)	포항 남구 (1,198)	대구 달서구 (1,146)	포항 북구 (1,145)	구미 (1,089)
	동구	경주 (2,759)	군산 (1,602)	대구 달서구 (1,333)	대구 북구 (1,152)	포항 북구 (1,024)
	중구	경주 (5,125)	대구 달서구 (1,053)	서울 관악구 (995)	포항 남구 (918)	포항 북구 (905)
경남	김해	구미 (2,240)	대구 달서구 (1,995)	제주 (1,864)	경주 (1,722)	서울 관악구 (1,657)
	진주	광양 (1,624)	서울 관악구 (1,556)	구미 (1,396)	서울 강남구 (1,386)	대구 달서구 (1,330)
	거제	대구 달서구 (1,677)	구미 (1,334)	서울 관악구 (1,227)	대구 북구 (1,209)	대구 수성구 (1,074)
	양산	경주 (2,279)	구미 (1,542)	대구 달서구 (1,408)	대구 북구 (1,109)	포항 북구 (1,102)
	창원 진해구	평택 (3,287)	동해 (3,107)	계룡 (2,258)	포항 남구 (1,350)	목포 (1,140)

〈 전 출 〉

시도	시군구	1위	2위	3위	4위	5위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남구 (3,830)	서울 관악구 (3,174)	서울 송파구 (2,525)	제주 (2,391)	서울 마포구 (2,326)
	부산진구	서울 관악구 (2,569)	제주 (1,829)	경주 (1,682)	구미 (1,679)	서울 강남구 (1,599)
	남구	서울 관악구 (1,929)	서울 강남구 (1,489)	제주 (1,428)	경주 (1,232)	구미 (1,219)
	사하구	서울 관악구 (2,004)	제주 (1,309)	구미 (1,289)	경주 (1,128)	화성 (1,096)
	금정구	서울 관악구 (1,977)	경주 (1,396)	서울 강남구 (1,239)	제주 (1,157)	구미 (1,137)
울산	남구	경주 (7,848)	서울 관악구 (2,771)	서울 강남구 (2,073)	대구 달서구 (1,960)	포항 남구 (1,928)
	북구	경주 (12,641)	경산 (1,339)	서울 관악구 (1,249)	포항 북구 (1,232)	포항 남구 (1,218)
	중구	경주 (7,026)	서울 관악구 (1,671)	포항 남구 (1,156)	구미 (1,118)	대구 달서구 (1,114)
	울주군	경주 (4,468)	포항 남구 (1,326)	서울 관악구 (1,306)	구미 (1,159)	대구 달서구 (1,102)
	동구	경주 (3,907)	경산 (1,240)	대구 달서구 (1,211)	서울 관악구 (1,162)	포항 남구 (1,083)
경남	김해	서울 관악구 (2,916)	제주 (2,438)	구미 (2,227)	화성 (1,940)	대구 달서구 (1,890)
	진주	서울 관악구 (2,634)	서울 강남구 (1,639)	구미 (1,463)	서울 동작구 (1,455)	광양 (1,436)
	거제	평택 (2,311)	서울 관악구 (1,759)	대구 달서구 (1,534)	구미 (1,337)	화성 (1,222)
	양산	경주 (2,300)	서울 관악구 (1,581)	구미 (1,391)	화성 (1,298)	제주 (1,184)
	창원 진해구	평택 (3,601)	동해 (3,122)	계룡 (2,688)	포항 남구 (1,453)	서울 영등포구 (1,375)

주 : 1) 2012~2021년 인구이동 합계
2) 시도별 인구 전출 및 전입이 가장 많은 5개 시군구 대상
3) 동남권내 인구이동은 제외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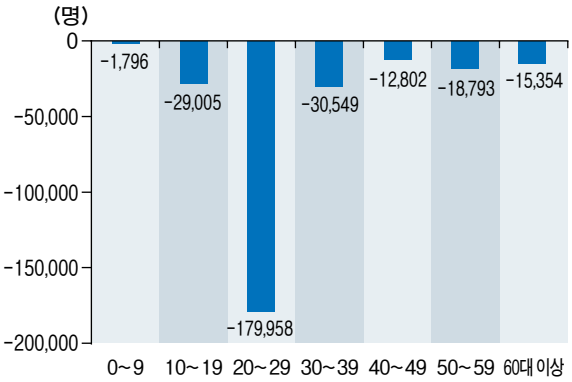
전 연령대의 전출인구가 전입인구 규모를 상회
10~30대는 수도권, 40대 이상은 비수도권이 중심

동남권은 최근 10년간 모든 연령대의 인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6)]가 18.0만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3.1만명), 10대(2.9만명), 50대(1.9만명), 40대(1.3만명) 등의 순이다. 60대 이상(1.5만명)과 10대 미만(0.2만명)도 순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 동남권 인구가 가장 많이 순유출된 지역을 살펴보면 10~30대는 수도권이었으며 충청권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160,358명으로 동남권 전체 순유출의 5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0대 이상의 경우 충청권, 대경권 등 비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40대의 경우 충청권, 50대 이상은 대경권이 순유출 1위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남권 연령별 인구이동 규모



주 : 1) 2012~2021년 합계
2) (+)는 인구 순유입, (-)는 인구 순유출
자료 : 통계청

동남권 연령별 인구이동 지역

(명)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제주권
10대미만	2,324	-3,004	-102	135	-1,149
10대	-23,525	-3,332	367	-1,991	-524
20대	-160,358	-21,143	3,898	961	-3,316
30대	-15,851	-10,188	-918	343	-3,935
40대	331	-5,085	-2,622	-2,690	-2,736
50대	511	-3,906	-4,315	-7,903	-3,180
60대이상	-3,388	-3,539	-2,426	-4,718	-1,283

주 : 1) 2012~2021년 인구이동 합계
2) (+)는 인구 순유입, (-)는 인구 순유출
자료 : 통계청

6) 동남권 20대 인구가 순유출된 상위 5대 지역은 서울(105,502명), 경기(47,873명), 충남(8,813명), 인천(6,983명), 대전(5,822명)으로 조사. 시도별로 보면 부산(59,278명), 울산(26,437명), 경남(94,243명) 역시 20대 인구의 순유출 규모가 타 연령대보다 큰 것으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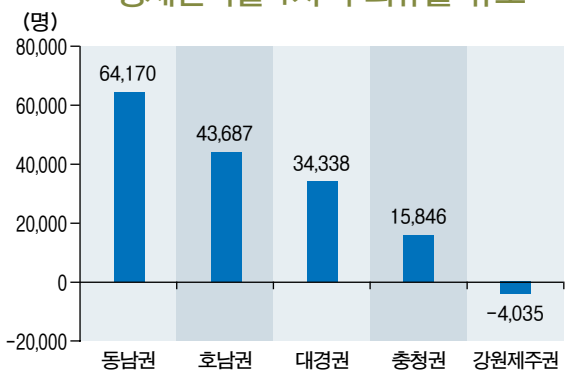
동남권 1차 및 2차 두뇌유출 규모 최대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노력 중요

동남권은 저출산[7],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면서 인구 감소세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국 인구는 98.8만명 증가한 데 비해 동남권은 15.1만명 감소했으며 43개 시군구중 76.7%에 달하는 33개 지역의 인구가 줄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모든 연령대의 인구가 동남권 역외로 순유출되고 있어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걱정이 크다. 동남권은 15~24세 인구가 '교육' 문제를 사유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1차 두뇌유출(1st Brain-drain)이 6.4만명, 20~29세가 '직업' 문제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2차 두뇌유출(2nd Brain-drain)이 13.2만명인데 이는 경제권역중 최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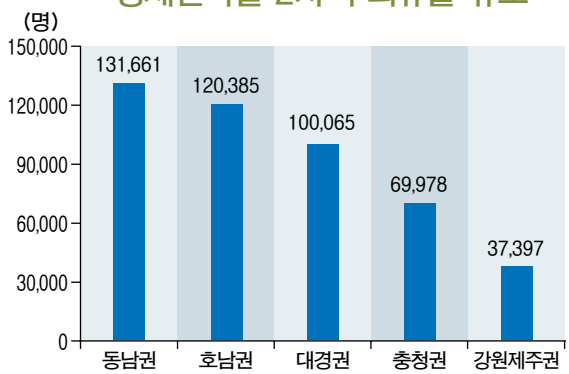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속도와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도 핵심 인적자본인 청년층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창업 생태계 조성, 우수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과 함께 청년유입과 정착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전담조직, 관련제도 등을 적극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권역별 1차 두뇌유출 규모



주 : 1) 2012~2021년 인구이동 합계
2) 15~24세 인구의 교육목적 수도권 전출
자료 : 통계청

경제권역별 2차 두뇌유출 규모



주 : 1) 2012~2021년 인구이동 합계
2) 20~29세 인구의 직업목적 수도권 전출
자료 : 통계청

7) 2021년 기준으로 부산(0.73명), 울산(0.94명), 경남(0.90명) 등 동남권 전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1명 이하를 기록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별 사업추진현황”, 2020.3

한국은행, “최근 울산지역 인구유출입 현황 및 시사점”, 2021.1

_____, “2000년 이후 전남지역 인구 동향 및 시사점”, 2021.7

_____, “최근 강원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구조 변화 분석”, 202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2020.1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dis.kostat.go.kr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07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09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10	동남권 기계산업 동향 및 시사점
11	2021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0년 동남권 경제

2021

01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02	동남권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미래
03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시사점
04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06	ESG 전환과 동남권 대응과제
07	2021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수소경제의 미래와 동남권 대응과제
09	조선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10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전망
11	2022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1년 동남권 경제

2022

01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수출 변화 분석
02	동남권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03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
04	원자재 시장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05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자영업 변화 특징
06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 ICT산업 현황
07	2022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금융시장 변화 분석
09	동남권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시사점

BNK금융지주

제2022-09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 행 인 김지완
편 집 인 김성주
발 행 처 BNK금융지주(www.bnkfg.com)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 락 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 쇄 애드벤처
2022년 9월 30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